

위원별 심의 의견서

☐ 의안명 :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 경관심의

☐ 심의의견

(해당란에 “○”)

	(원 안) 채 택	조건부 채택	재심의	반려	비 고
기술심의 의안		0			

○ 사 유 : 심의의견에 조건제시하였음

국가철도공단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검토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6월 30 일

성 명 : 권준호



국가철도공단 경관심의소위원회 위원장 귀하

철도시설의 경관체크리스트(심의위원용)

안건명 :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 경관심의

구분	검토항목
기본방향	지역경관의 특성과 주변지역의 경관을 고려한 아름다운 철도 조성
	경관의 시각적 연속성과 조망성이 확보되는 철도 조성
	지역경관을 선도하는 관문으로서 인지가 쉽고 이용이 편리한 철도역사 조성

[심의의견*]

철도경관의 가장 큰 문제는 육중한 콘크리트교량 으로 도로이용자의 주변경관(시선)을 차단하고 해치는데 있다

1공구 염작1과선교 지역특산물 배초로미 마을 배색과 배상징을 넣어도 좋을 것
쌍암교 아래부분 산업지대 주차장등으로 우범지대로 변할수있음 안쪽공간에 문화시설등으로 활용하거나 밝게 또는 공원화등으로 버려지는 공간을 최소화 시키길 바람
운용1고가 국로34부분 관련하여 비교1,2 안과 같은 운전자인식이 가능한 디자인이 필요함
신휴고가와 연재저수지구간에는 선진국등에서 보았던 진동 반응형 센서등으로 야간
저수지이용객에게 기차가 지나갈때마다 웰컴센서등이 기차처럼 지나가듯이 켜지면서 이벤트를 선사한다면 훨씬 경쾌한 철도 이미지를 부각시킬수있음

5공구 연제교 디자인 관련하여 오송의 상징인 5그루의 소나무나 화장품와 같은 지역의 상징을 찾아 의미있게 디자인하였으면 한다. 의미없는 디자인에 채도가 높은 오렌지색은 오송산업단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궁금증만 유발시킨다.

2공구 서측주구난 시설 관련하여 전면 광장에 조경시설이 획일적으로 구성되어있다. 사업비나 관리의 문제가 있다면 중앙 잔디쪽으로 규모를 작게하더라도 이용객이 쉬고 기다릴 수 있는 그늘막이, 벤치, 테마가 있고 아기자기하게 즐길수 있는 오솔길과 같은 조경적 구성이 필요하다.

천안아산역 역사는 도시를 차단하는 벽이라 불릴정도로 거대한 회색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도시의 경관을 막는다. 이번 사업과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복선화 사업이라면 이부분을 간과하지말고 이부분이 해결되도록 경관에 예산을 투입하여야한다.

심의위원: 권준호

